



CPH STAGE banner © Danish performing arts

[더프리뷰=코펜하겐] 하영신 무용평론가 = <CPH STAGE>는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덴마크의 공연예술축제다. 2013년에 개시, 9회에 당도한 올해의 행사는 6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렸고 필자는 8일부터 10일까지의 국제 방문자 프로그램(International Days)을 참관했다. 모든 현장은 저마다의 현장, 세계 공연예술의 판도가 'contemporary'라는 슬로건 아래 통합되는 듯해도 그래도 현장들은 각자가 걸어온 역사의 끄트머리, 결코 나란하지 않다. 다른 현장에는 다른 감도의 장면들이 있다. 이를 소개한다.



KABOOM © Lars Vind-Andersen

KABOOM-THE ART OF DESTRUCTION

company: Live Art Denmark

사실 예정에 없던 관람이었다. 원래의 계획은 Fix&Foxy라는 창작집단의 <Avatar Me>라는 온라인 라이브 공연(online live performance)이었다. 줌(Zoom) 링크를 통해 1:1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공연은 사적인 공간과 좋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관람 몇 시간 전에야 보내왔으니 피치(Pitch, 공연 홍보와 계약을 위한 사전 프리젠테이션) 세션에 참석중이던 타지의 이방인이 해결하기에는 난감한 전제. 접속이 가능했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나 말레이시아 어딘가의 생면부지 누군가로서의 45분간을 소요(逍遙)하며 공연예술의 미래형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아날로그 현실의 과거적 단면, 그 양단을 고민하게 되지 않았으려나.



KABOOM © Ellen Friis

대신 관람하게 된 <Kaboom>은 반대급부형이랄까. '우르르랑'이라는 의성어 제목에서 예상 가능하듯 어린이들을 위한 참여형 렉처 퍼포먼스. 밝고 환한 교실, 실험실 가운을 입은 남녀 퍼포머가 45분간 금기의 해제를 경험하게 해준다. 흉상을 비이커에 빠뜨리고, 꽤 유명한 명화들의 복사본을 덧칠하고 찢고, 약기를 부수고... 예술과 유희의 친연성을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이 꽤 잘 짜여 있어 일반 어린이 관객은 물론 성인 프로모터들에게도 즐거운 한때였다.

• [공연모니터] 떠도는 유사 의사소통을 가로지르는 신체의 절규, 이남영의 '이름-다가서다'



• 소프라노 박혜상, 카네기홀 데뷔



• 서울아트시네마, 자크 타티 회고전 '월로와 친구들'



• 한국 리얼리즘 연극의 정수, 국립극단의 '만선'



• 국립극단 2023 공연 라인업 및 주요 사업계획 발표



• '금빛 소리, 조이스 디도나토와 세종솔로이스츠의 새봄 잔치'



• 화제의 웹툰, 최고의 소리로 탄생하다! 국립창극단 '정년이'





KABOOM © Lars Vind-Andersen

**KABOOM-THE ART OF DESTRUCTION**

company: Live Art Denmark

사실 예정에 없던 관람이었다. 원래의 계획은 Fix&Foxy라는 창작집단의 <Avatar Me>라는 온라인 라이브 공연 (online live performance)이었다. 줌(Zoom) 링크를 통해 1:1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이 공연은 사적인 공간과 좋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관람 몇 시간 전에야 보내왔으니 피치(Pitch, 공연 홍보와 계약을 위한 사전 프리젠테이션) 세션에 참석중이던 타지의 이방인이 해결하기에는 난감한 전제. 접속이 가능했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나 말레이시아 어딘가의 생면부지 누군가로서의 45분간을 소요(逍遙)하며 공연 예술의 미래형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아날로그 현실의 과거적 단면, 그 양단을 고민하게 되지 않았으려나.



KABOOM © Ellen Friis

대신 관람하게 된 <Kaboom>은 반대급부형이랄까. ‘우르르깡’이라는 의성어 제목에서 예상 가능하듯 어린이들을 위한 참여형 렉처 퍼포먼스. 밝고 환한 교실, 실험실 가운을 입은 남녀 퍼포머가 45분간 금기의 해제를 경험하게 해준다. 흉상을 비이커에 빠뜨리고, 꽤 유명한 명화들의 복사본을 덧칠하고 찢고, 약기를 부수고... 예술과 유희의 친연성을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이 꽤 잘 짜여 있어 일반 어린이 관객은 물론 성인 프로모터들에게도 즐거운 한때였다.

한국 국립극단, 국립극단, 국립극단, 국립극단



국립극단 2023 공연 라인업 및 주요 사업계획 발표



‘금빛 소리’, 조이스 디도나토와 세종솔로이스츠의 새 봄 잔치



화제의 웹툰, 최고의 소리로 탄생하다! 국립창극단 '정년이'

